

만화시장에 출사표 던진 단행본 출판사들

만화에 대한 인식 바꾸는 좋은 계기 될 듯...

수준 미달 작품의 무분별한 출판 경계해야

만화시장에 단행본 출판사들이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 이들 출판사들이 소개하는 만화는 유럽과 미국의 수준 높은 예술만화에서 역사만화, 교양만화, 전쟁만화까지 그 장르도 다양하다. 전문가들은 이들 출판사들의 만화 시장 진출에 대해 만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국내 만화시장의 폭을 넓히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무분별하게 외국만화를 수입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만화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문학과지성사, 문학동네, 황금가지, 현실문화연구, 초록배매직스 등이 잇따라 만화를 펴내면서 만화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예술만화 소개하는 순문학 출판사들

문학과지성사는 지난 8월 10일 프랑스 작가 르네 고시니의 만화 《아스테릭스》 시리즈 가운데 1차분 3권을 우선 출간했다. '골' 족의 키작은 전사 아스테릭스가 오벨릭스와 함께 로마 제국에 맞서 싸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만화는 모두 31권까지 나와 있다. 이 만화는 영화로 제작·상영됐고 에펠탑 높이의 몇 배에 달하는 판매량을 자랑하는 현대 만화의 고전. 문학과지성사 윤병무 편집장은 이 가운데 6권을 계약했다고 밝혔다. 문학과지성사는 9월 중 《한겨레》에 인기리에 연재되고 있는 홍성우의 《비빔툰》 제3권을, 올해 연말쯤 《비빔툰》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만화를 펴낼 계획이다.

윤편집장은 “〈문지 스펙트럼〉 시리즈를 내면서 장르에 대한 고집을 접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작품의 질만 좋다면 계속 펴낼 예정”이라고 만화시장 진출의 변을 밝혔다.



문학동네는 지난해 2월 만화출판을 위해 '애니북스'라는 자회사를 따로 설립했다. 문학동네는 지난 1997년 《죽음의 행군》(빌 맨틀로 외 글·장 클로드 갈 그림, 문신원)을 펴내 '예행 연습'을 한 바 있다. 이 만화는 그림을 그린 장 클로드 갈이 “극도로 정교하고 치밀한 묘사 때문에 생전에 모두 다섯권의 만화 작품집밖에 완성하지 못했다”며 그가 무려 20여년에 걸쳐 그렸다는 작품이다.

애니북스는 화려한 그래픽이 돋보이는 마이클 터너의 미국 만화 《심연》(서재인) 1, 2권을 지난 7월 출간하면서 만화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다. 애니북스는 곧 이어 《개미》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글을 쓰고 알랭 무니에가 그림을 그린 《EXIT》와 일본만화 《오자

르마르》를 펴낼 예정이다. 또한 《누들누드》의 작가 양영순씨와 함께 만든 만화 이론서도 출간 목록에 올라 있다.

정홍수 편집장은 “대여점에서 빌려보는 만화가 아닌 서점에서 팔리는 만화를 만들겠다”고 말한다.

“《죽음의 행군》을 통해 만화도 서점에서 팔릴 수 있다는 판단이 서 만화시장에 뛰어들게 됐다. 앞으로 고전으로 꼽히는 작품을 계속 펴낼 것이며, 국내 작가들의 작품도 선보일 것이다.”

현실문화연구도 만화 시리즈 〈현문코믹스〉를 개발해 활발하게 만화를 펴내고 있다. 현실문화연구는 최근에 펴낸 《체 게바라》(엑토르

오에스테르엘드 글·알레르토 브레시아 외 그림, 남진희)

를 비롯해 서기 2023년의 파리를 배경으로 한 SF만화 《니코폴》(앵키 벨랄, 이재형), 《임몽디스》(다니엘 윌레, 유재명) 등 지

금까지 모두 6종을 펴냈

다. 현실문화연구는 유럽의 수준 높은 만화를 소개해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야수의 잠》《화이트 소녀》 등도 출간을 기다리고 있다.

서점만화만을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글논그림밭’은 1995년 2월 만화출판을 시작한 윤영상의 문제로 문을 닫았다가 지난 2000년 12월 종합출판사인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 흡수되면서 최근 만화출간을 재개하고 있다. 국내의 질 높은 만화를 단행본으로 출간하고 있는 글논그림밭은 지난 7월 이희재의 《간판스타》와 오세영의 《부자의 그림일기》를 복간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앞으로 박재동씨가 《한겨레》에 연재했던 만화를 모은 《목 긴 사나이》, 이희재의 《해님이네 집》, 상명대 만화과 공모전 수상작을 모은 《죽이는 고딩만

화》등을 출간할 계획이다. 또한 '글썸그림나무' 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신인작가를 발굴, '서울애니메이션 센터'의 지원을 받아 작품을 펴낼 예정이다.

교양만화와 마니아만화 등 다양하게 선보여

예술만화뿐만 아니라, 역사만화를 비롯한 교양만화와 전쟁만화, 인디만화 등 마니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를 펴내는 출판사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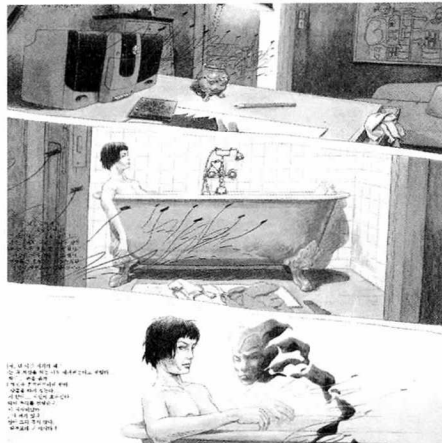
판타지 소설을 비롯한 각종 대중문학작품을 활발히 펴내고 있는 황금가지는 지난 7월 사토나카 마치코의 《만화 그리스 신화》(최은석)를 펴내며 만화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현재 서점에는 1~3권까지 나와 있으며 9월 중 전8권으로 완간될 예정이다. 그리스 신화를 순정만화풍으로 재구성한 이 책은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신들의 이야기, 오디푸스의 비극, 헤라클레스의 전설, 트로이의 목마 등과 그리스 신화에 얽힌 여러 뒷이야기를 담고 있다. 번역가이자 신화전문가인 이윤기씨의 감수를 거쳤다. 황금가지는 과학사를 만화로 푼 《만화 과학 위인전》을 준비중이다.

황금가지의 만화시장 진출에 대해 장은수 편집장은 "성인들의 교양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이원복류'의 고급 교양만화 시장 개척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록배매직스는 2년 전부터 인디만화와 전쟁만화를 꾸준히 펴내고 있다. 초록배매직스의 주 공략 대상은 마니아층. 편집부 김종훈씨는 초록배매직스에서 펴내는 만화의 대부분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선다고 전한다.

"만화가 서점에서 유통될 초기에는 독자들이 만화를 7천원 주고 사본다는 데 많은 부담을 느꼈지만, 지금 독자들은 만화도 그 정도의 가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들 출판사들은 우선 예술성 높은 작품을 출간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각 출판사들 만화 담당자들의 공통된 말은 만화가 더 이상 하위문화가 아니라는 것. 그들은 서구의 경우, 만화는 예술로 대접받고 있다는



최근 만화출판을 선언한 출판사들은 예술성 높은 작품을 선보여 독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출판사들이 펴내는 만화는 만화가 더 이상 어린이들이 보는 것이 아니며, 예술의 한 장르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진은 현실문화연구에서 펴낸 《임몽디스》의 한 장면.

점을 예로 들면서 국내에도 만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한다.

수준 미달의 작품 양산 경계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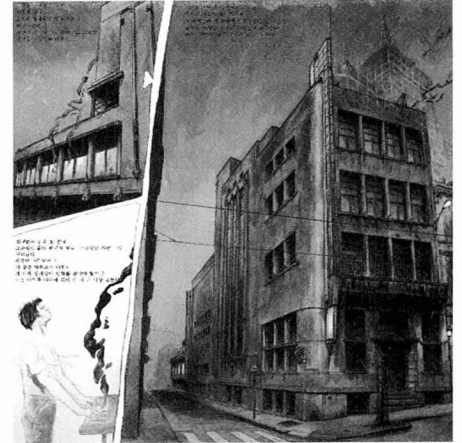
현실문화연구의 김수기 대표는 "유럽의 만화를 보면서 만화의 예술성을 확인했다"면서 "유럽의 경우 내용, 그림 스타일, 주제 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만화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도 만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앞으로 만화읽기가 성인독자층의 진지한 독서행위로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금가지 장은수 편집장은 서점용 만화의 시장 가능성에 대해 "서점용 만화시장은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질 높은 작품을 소개하고 본격적인 투자만 따른다면 충분히 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들 출판사들의 만화시장 진출에 대해 기존의 만화출판사들은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원씨아이 장재용 단행본 팀장은 "만화출판의 진입장벽이 낮다보니 여러 출판사들이 뛰어들었다. 하지만 시장 구분이 확실한 만큼 만화시장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단지 새로운 시장이 하나 더 생긴다고 보면 된다. 단행본 출판사들의 만화시장 진출로 만화도 사보는 것이라는 인식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만화평론가 박창석씨 역시 이들 출판사들



의 만화시장 진출에 대해 만화는 저급한 것이며 아이들이 보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그는 일명 '망가'라고 부르는 일본만화 일색인 우리 만화시장에 좀더 다양한 만화를 소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만화가 서점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화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출판사들이 펴내는 만화는 10대와 20대에만 한정돼 있는 만화독자층을 30, 40대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단행본 출판사들이 단행본 펴내듯 만화출판을 쉽게 시작했다는 생각도 든다"면서 "일본 만화에 길들여져 있는 독자들의 입맛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만화출판은 일반 단행본과는 유통 구조가 다르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기획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 출판사들의 잇따른 만화시장 진출이 과당경쟁으로 흘러 수준 미달의 작품을 무분별하게 출판하는 것은 경계해야 될 것이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 이들 출판사들이 펴내는 만화는 번역만화 일색"이라며 "국내 작가 발굴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갑수기자